

# 내 정신의 순례였던 동양정신의 꽃

##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진월스님 · 삼소방(URI Korea) 주인

전생부터의 인연이었는지 불교가 좋아 승단에 입문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입산해서 경전공부와 참선 등 수행을 통해 얻은 지식과 체험을 세상에 나누고자 시중에 나온 지도 20년이 되고, 그 사이 해외에서 10여년을 보내며 서구의 학문과 문화를 연구했다. 작년 가을 귀국한 후, 대학의 강단과 사찰의 법좌, 출세간과 세간의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 불교 관련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 읽은 책을 돌아보면 언어나 형식, 내용이 참 다채롭다.

산중의 강원(講院)에서는 한문으로 된 불경(佛經)과 선사어록(禪師語錄)들을 보았고, 시중의 대학에서는 한글로 된 연구서적들을 읽었다. 미국에서는 산스크리트와 팔리어 및 티베트 문헌을 보았고, 영어와 불어 연구물을 읽었다. 불교 교리와 역사는 물론, 문학과 예술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것은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나들며 훌륭한 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려왔다. 또 책을 통해 위대한 불교인의 인격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다. 소개하고 싶은 책이 많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도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추억해 본다.

입산하기 전 문학소년시절에 읽었던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사춘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데미안》을 읽던 시절에 함께 보았는데, 제목이 암시하듯 해탈한 부처님을 그리기보다 그 이전 보편적 인간 체험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고 싯다르타의 역사적 삶을 순수하게 묘사한 것도 아니다. 그의 인간성을

인도 내지 동양 정신의 한 꽃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재구성했다.

헤세가 기독교인이면서 엄밀한 불교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닌 상상력 풍부한 문학가였음을 생각하면, 싯다르타의 생애에 대한 현상적 지식보다 그가 이해한 싯다르타의 종교적 의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아무튼 고백하건대 나는 그 책을 통해 '싯다르타'를 소재로 쓴 누구의 책에서보다 훨씬 더 큰 인간적 감동을 받았고 《싯다르타》가 보여주는 헤세의 영적 탐구의 시사가 내 정신적 순례의 한 요인이 됐다.

춘원의 《원효대사》는 역사소설의 하나지만 역사적 자료를 춘원 나름대로 소화·해석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문학적 상상력으로 채우고 조정했기에 '춘원의 원효'다. 춘원은 원효를 개인이 아닌 신라인의 삶의 전형, 혹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인격으로 이해했고, 아마도 자신의 이상을 원효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려 한 듯하다. 나 자신도 그동안 원효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 해왔지만, 아직도 소설로 마음에 새겨진 원효의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다.

춘원의 상상력에 빚진 소설임을 감안하고도 원효의 삶을 그럴 듯하게 되살려낸 이 책은 읽는 이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피상적이고 지말적인 어떤 상황의 묘사보다도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볼 때, 민족애와 아울러 실존적 인간애를 그린 《원효대사》는 흥미진진한 걸작품의 하나로 느껴진다. ❖



# 아름다운 수필처럼 가슴에 와닿는 책

## 마쓰야 후미오의 《불교개론》·《아함경 이야기》

호진스님 ·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됐던 1972년 봄, 내 작은 짐보따리 속에 우연히 들어 있었던 불교 책은 마쓰야 후미오(増谷文雄)가 쓰고 이원섭 선생이 번역한 현암사의 《불교개론》과 《아함경 이야기》였다. 이 두 책이 글자 그대로 '나에게 불교를 알게 한 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대학에서 불교공부를 7년이나 했으면서도 연기법·사성제·오온·무아와 같은 기초교리에 대해서조차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프랑스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 사실이 내겐 놀라움과 충격이었다. 마쓰야 후미오의 두 책은 그때의 내 절박한 상황과 요구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었는지 모른다.

이 책들은 기존의 딱딱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교리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수필처럼 가슴에 와 닿았고 읽기 쉬웠다. 불교교리서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경이였다. 읽고 또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내가 불교의 기본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두 권의 책 덕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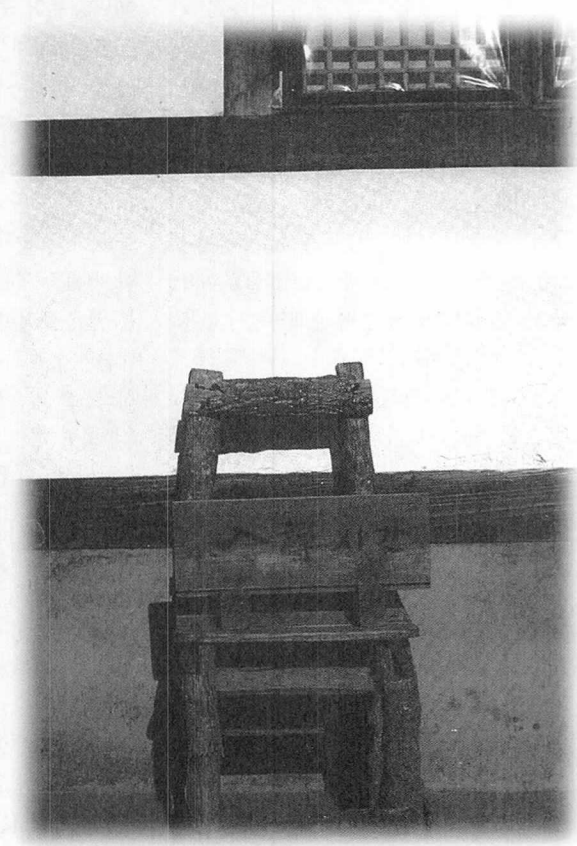
이 두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현대인의 언어와 사고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불교의 넓은 울타리 속에서 불교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세기적 광장에 서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의 언어 또는 인류의 언어로 불교를 말해 보고자 한다. 더 욕심껏 말한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사유법을 그대로 써서 불교의 성격을 밝혀 보고 싶기도 하다.”

저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용은 훨씬 더 성공적이다. 이 두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핵심교리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는지 저자가 안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들은 나의 애독서 가운데 하나다.

나는 불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물론 나 자신도 종종 도움을 받곤 한다. 초보자들의 교양서로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참고서로도 좋다. 나는 《불교개론》과 《아함경 이야기》를 만나 불교에 대한 '이해다운 이해'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을 아련하게 추억한다. 더불어 저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슴 한 구석에 간직하고 있다. ❖

《암자로 가는 길》 중(사진 김홍희).



# 깊이가 그저 아득한 불경의 참뜻

《반야심경》과의 인연

인권환 · 고려대 국문과 교수

불교를 아는 사람치고 《반야심경》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 깊은 뜻이야 알건 모르건 불교의 크고 작은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로 《반야심경》 외우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처음 불교를 알게 된 것도 《반야심경》을 통해서였다.

대학 3학년 때 《한용운 전집》

자료 정리차 경남 사천의 다솔사에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효당 스님께서 우리들(나 외에 세 명의 친구)을 법당으로 부르시더니 《반야심경》 강의를 하시는 것이었다. 장장 4시간 30분이나 계속됐던 스님의 강의를 듣는 동안 나는 정신적으로 어딘가로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뒤, 일종의 환희 같은 걸 느꼈다. 20대 전반의 소박했던 나의 삶과 인생에 대한 회의가 풀리는 듯 했고 무언가 막힌 듯했던 정신세계가 뚫리는 듯했다. 그것은 방향하던 내 정신의 귀착지를 발견한 기쁨이었고, 또 이는 곧 나의 불교에의 이니시에이션이기도 했다.

그때의 그 느낌을 나는 서울로 돌아온 뒤 시조로 읊어 국문과 학회지 《국문학》 7집에 발표했었다.

무명(無明)의 망향길 번뇌 더욱 성하던 밤/그 어디 님을 두고 부질없이 헤맸더니/ 이제와 귀기울이매 나만 홀로 높구나// 있는 것이 없거니 없는 것이 있을손가/ 깊은 산 한 점 몇 명사십리 한 알 모래/ 그 모두 나 아님 없애며 피안 따로 없거니// 반야로 가는 길은 축도난(蜀道難) 말이 아니/꽃피고 물 흐르니 차 향기만 그윽하다/ 저 멀리 님의 옷자락 보일 듯도 하여라 - 《국문학》 7집(1963)

지금 생각하면 치기어린 초심자의 글장난으로 보여져 씩스럽기까지 한 이 작품은 말하자면 내게 있어 최초의 오도시(悟道詩? 呵呵大笑)였다. 여하간 그때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된 《반야심경》 강의가 준 충격과 감동이 매우 컸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후 계속 《반야심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서점에서 《반야심경》에 대한 책만 보면 사다 읽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모은 《반야심경》 해설류의

책이 국내본만도 13종이나 된다. 모두 같은 경을 말한 책이지만 글쓴이에 따라 그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 경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반야심경》에 대해 여러 책을 읽어 내 뉘에는 좀 안다 싶어 남에게 《반야심경》 강의를 하는 무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즉 몇년 전 대학원 '특수과제연구' 라는 과목에서였다. 원래 이 과목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특수한 과제를 다루는 과목인 바, 그때 마침 내 학위논문인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란 책이 나온 직후라 학생들의 요청도 있어 불교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불교문학을 논하기 전에 불교의 사상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서론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였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을 알고 나서 그 후로는 다시 《반야심경》 강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야심경》에 대한 나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지금 나의 서재에는 13종의 《반야심경》 해설서 외에 세 가지의 《반야심경》 관계 기념물이 있다. 하나는 추사 김정희가 쓴 《반야심경》을 목각한 현판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반야심경》을 잔글씨로 쓴 부채[合竹扇]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채꼴의 작은 철판에 《반야심경》을 양각하여 매듭으로 보기 좋게 매달아 벽에 걸도록 만든 장식품이다. 모두 내가 사거나 구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선물이다.

하고 많은 선물 중에 《반야심경》이 씌어있는 선물을 준 제자들의 뜻도 알 만한데, 이것들을 방안에 두고 늘 보는 나아말로 《반야심경》과 무한한 인연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인연 속에 《반야심경》의 참뜻을 아는 날은 과연 언제일지 그 유심현묘(幽深玄妙)한 깊이에 그저 아득할 뿐이다. ❖

인권환 교수 불교수상집 《꽃피고 물흐르네》(나남출판)중에서 발췌.

#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멀고도 가까운 불교 교양서

불가의 가장 큰 화두는 '마음'이다. 멀고 먼 수행길을 떠났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불현듯 깨달은 원효의 가르침은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이었다. 불교가 대중에게서 멀고도 가까운 이유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고, 불교책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 무심하면 멀어지고 기깝다고 여기면 바로 자신이 책이 된다.

불교를 가르치는 책 가운데 가장 친숙한 것은 에세이. 일종의 수행일기랄 수 있는 스님들의 글은 일상을 통해 불교의 향기를 은근히 전한다. 재연스님의 《입산》(문학동네), 화가스님인 수안스님의 《참 좋다, 정말 좋구나》(늘푸른소나무)에 나타나는 스님의 삶은 속인과 비슷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나 자연과 사물을 대할 때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재연스님은 훈김을 찾아 밥 짓는 솜에 뛰어난 개구리에게서 살생계와 유희를 떠올리고, 자신의 그림 6천만장을 남복한 피붙이 모두와 나누겠다는 마음이 복제품으로, 책 표지화나 삽화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는 수안스님은 불교 수행의 하나인 기도의 힘을 보여준다. 타자의 시선이 녹아 있는 《겨울부채》(키와자과 만사, 생활성서사)와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로버트 버스웰, 예문서원), 《중국선불교답사기》(자작나무)도 흥미롭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절 등의 매개나 쉽게 풀이한 불경의 구절도 부처의 세계를 열어준다. 《절에서 배우는 불교》(혜지스님, 우리출판사)에서는 일주문·천왕문 등 산문과 대적광전·극락전 같은 전각, 불상과 불화, 장엄물과 장엄구, 의식법구 등이, 《법수로 배우는 불교》(이제열, 여시아문)는 절·불교와 관련된 숫자가 불교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된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야기 인연》(진현중, 들녘)은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의 저자가 '인연'의 가르침을 경전에서 뽑아 전한다. 보통 사람들이 직접 읽기 어려운 《법구비유경》,

《잡보장경》, 《현우경》 등 8경 가운데 설화 형식의 이야기 54편을 풀어놓았다.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가르침이 마음을 끈다.

부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불교의 본격 입문서와 불경의 내용으로 심화해 가는 것이 순서다. 민족사에서 나온 《보살의 마음 증생의 마음》(일타 스님 편역),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 경전 가운데 새길 만한 구절을 뽑아 엮었고,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으로 건너가면 불교의 깊이를 맛볼 수 있다.

폭넓은 관심을 받았던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다가간 《참선요지》 등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의 정도에 따라 두루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유학자가 쓴 '선불교 강의' 《문무관, 혹은 "너는 누구냐"》(한형조)가 관심을 모은다. 독립적으로 제시됐던 화두들을 모아 엮은 《문무관》의 해설서이면서 독특한 문체와 관점으로 선의 역사와 이념, 한계까지 살필 수 있다.

다양한 대중불교서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한다. 고양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그럴 듯한 말로 '혹세무민' 하고, 책꼴조차도 펜시화·경박화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것이다. 여시아문의 윤재학 편집장은 "부처의 가르침은 백화점 물건 사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경계한다.

—이현주 기자

